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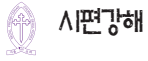
2008년도 표어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요10:10)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영혼의 깊은 밤

(시편 88:1-18)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사는 자에게는 흑암이 광명으로 변하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게 되며 저주가 축복으로 변합니다.



목자는 건강하고 잘먹는 양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병들고 소외되어 울고 있는 양을 찾아 위로하고 구하는 일을합니다. 우리의 큰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은 오늘 고통 중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도 때때로 고통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영적으로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다면 우리의 위로와 기쁨은 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불신자들의 고통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불신자가 경험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슬픔과 고통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 1.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어!

하나님을 자기의 구원주로 삼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15절에 의하면 시인은 아주 오랫동안 밤낮으로 고통을 제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돌리쳐 주시지 않았습니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거나 무기력하신 것입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영적인 낙담보다 지적인 낙담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낙담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야로 부르짖지만 기도응답을 받지 못할까봐 종종 두려움에 빠집니다. 예레미야도, 히스기야 왕도, 계속된 고난으로 압도당하는 욥과 같은 이에게도 이 같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 진실하게 찾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2절), 스피전 목사님은 ‘그의 고통은 그의 기도의 불꽃을 끄는 것이 아니고 활활 타는 용광로처럼 하나님께 더 큰 열심을 불러 일으켜 주었다’고 합니다. 기도 응답의 지체는 거절이 아닙니다. 지체는 응답을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내 구원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 2. 미래를 보는 믿음의 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천국에 대한 약속을 믿는 성도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며, 죽음이 절망의 수렁에 우리를 던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시고 주의 파도로 괴롭히신다는 사실

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칫 낙심하기 쉽습니다. 경건한 욥은 갑자기 닥친 비참으로 고통 중에 울부짖었습니다. 욥기서의 핵심은 욥의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 88편은 욥기서와 맥을 같이 합니다.

욥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사탄과 천사들 앞에서 욥을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이루시려는 뜻이 무엇인지 기도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미래가 현재의 고난 때문에 퇴색되거나 멀 중요시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현재의 고난이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미래 약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 3.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이 저들의 축복을 모두 박탈하셨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아는 지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10-11절). 우리 가운데도 이런 경험을 해 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시인은 비통함, 절망, 죽음, 공포, 고독 외에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황하였다고 했습니다(15절).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도리어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시는 흑암으로 끝이 납니다. 침묵의 깊은 밤이 우리에게 최후의 밤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사는 자에게는 흑암이 광명으로 변하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게 되며 저주가 축복으로 변합니다.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락한 삶을 살기보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현재의 삶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를 양자로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시인은 욥과 같이 어둠 속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니다. 하나님의 긍정적인 대답은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 성도에게 승리가 오게 됩니다. 고난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 중에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TV :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신 주님

##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성 금요일(21일) 금식선포

내일부터 부활절(23일) 전까지 6일간 성도들은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수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으로 지키며 특별새벽기도회를 갖는다. 17일(월)부터 22일(토)까지 새벽기도회 시간(오전 5시30분)에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묵상하는 메시지를 받으며 주님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우리 주님이 못 박히신 성 금요일(21일)은 해 있는 동안 금식을 선포하여 모든 성도들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고난을 체험하고 이날 금식헌금은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 쓰여진다.

성 금요일 다락방 모임은 교회에서 모든 식구들이 8시부터 한자리에 모여 이종윤 목사의 인도로 드린다. 이날 환자들을 위한 기도회는 모이지 않는다.

모든 성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받으며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다음주일은 부활절로 새벽예배(5시)를 드리고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하며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고 찬양예배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특별 음악예배를 드린다.

# 제16차 KIMCHI 신학세미나

## 5월19일(월) - 5월28일(수) · 프랑스 교계지도자 초청

5월19일(월)부터 28일(수)까지 10일간 프랑스 교계지도자 32명을 초청하는 제16차 KIMCHI 신학세미나가 열린다. 교회는 이번 KIMCHI신학세미나를 준비하며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3월30일 주일예배 시간에 제16차 KIMCHI 신학세미나를 위한 특별헌금을 드리기로 하였다.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국 교회지도자들을 깨워 복음사역에 열심을 갖게 하는 이번 김치신학세미나에 참가하는 교역자들의 항공료와 체류 중 숙식문제를 위해 온 교회가 헌금에 동참

할 것을 권장한다.

김치위원회(위원장 서문석 장로)는 1구좌에 10만원으로 하고 정성껏 바치되 형편에 따라 1/2구좌(5만원), 1/3구좌(3만원) 혹은 1구좌 이상도 할 수 있다고 한다. 모쪼록 참여 못하는 가정이 하나도 없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성도들의 특별헌금으로 김치신학세미나를 개최해 온 전통에 따라 금년에도 풍성한 헌금과 기도가 모여져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다.

# 전망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 3월12일(수), 3호기 설치 구청허가 얻어

우리교회는 성도들의 증가로 기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는 주일 등 각종 예배시간 이용에 불편이 많아 성도들의 이동을 조금 더 원활히 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1대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하였다.

지난 3월12일(수) 강남구청으로부터 '교회 대수선

공사허가'를 받고 승강기 제작기간을 감안하여 승강기 제작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경치가 좋은 한티공원 쪽으로 전망 엘리베이터로 설치하여 이용하는 성도들이 엘리베이터 유리창을 통해 한티공원과 개포동 방향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회 주위 환경조성

## 교회앞 도로 정비, 지하주차장 물청소 등

교회는 3월 봄을 시작하면서 활발히 시작되는 열린 프로그램 등에 맞추어 지난 8일(토) 스테반회 주관으로 지하주차장 물청소를 시작한 데 이어 지난 3월11일(화)부터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여 바닥이 파이고 바닥에 댕 통나무 조각이 부서진 교회 돌성경 앞에서 한티공원으로 이어지는 교회 주변 도로 공사

를 실시하였다.

또한 24일(월)에는 8층 만나 홀 바닥을 청소하고 왁스를 도포하는 작업을 한다. 옥상에는 현수막을 새로 제작하여 설치하고 옥상 벽면에 설치된 '서울교회' 잔널 싸인물을 LED로 교체하는 등 교회 환경을 개선하여 새 봄을 맞고 있다.

# 아가페 타운(사랑의 마을)

##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 10,227평(33,180㎡) 부지

우리교회의 3대 목표중 하나인 빈약한 자 구제를 위해 지난 3월2일 제직회에서 통과된 아가페 타운(사랑의 마을) 건설을 위해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에 10,227평(33,180㎡)의 부지를 계약하기로 하고 각종 허가문제를 관련 관청에 확인 중에 있다.

각종 허가 문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히 해결되어 계약을 체결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터를 세우도록 기도한다.

# 사랑의 헌혈

## 오늘 오전 8시30분 교회 앞에서

우리교회 청년1부는 오늘(16일 주일) 교회 앞 마당에서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4시까지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갖는다. 고난 주간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를 모두 쏟아내신 고통을 참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을 기억하며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기

다린다.

헌혈에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회 앞마당 헌혈차로 모임된다.

# 제8기 인도 단기선교단 지원자 접수 중

## - 사무국으로 -

8월4일(월) 인도로 파송되는 8기 단기선교단(단장 이영기 장로)에 지원하는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다. 단기선교단은 8월 4일(월)부터 13일(수)까지 9박 10일간 인도 푸네 등지에서 현지 선교사와 연계하여 선교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예상비용은 약 200만원(항공료, 숙박, 선교비용 등)이며, 전액 자비량이다. 인도 단기선교단에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사무국에 신청하기 바란다.



고난주간

# 사랑의 불

김대호 장로(8교구)

끌고다 험한 길 마다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무거운 죄짐 지고 감이요

가시관 흘린 피도 참고 견딘 것은  
우리의 얼룩진 허물을 인함이라

죽음의 십자가 말없이 진 것은  
영혼 구원의 큰 뜻 이루시려 함이네

흑암의 무덤에서 침묵의 사흘은  
다시 살아나심을 기다리는  
생명의 시간이라

흑암의 여명으로  
산소망의 새벽은  
부활의 승리

우리 모두를 살리는  
사랑의 뿔이라



사순절의 묵상

# 침묵

안성의 집사(9교구)

쓰러지며  
끌고다 비탈을 오르셨다  
군중들의 함성을 들으며.

피 흘리며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  
조롱과 비웃음을 들으며.

기적을 체험하고  
다섯개의 보리떡을 함께 했던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다

그러나  
잘못을 들은 자는 아무도 없었다.

가이사 충신들의 잔인한 채찍을 맡으며  
바라바 편에선 백성들의 아우성을 들으며

세상에서  
버림과 거절을 당하셨다.

못 박는 망치 소리  
은 세상 덮었고

물과 피 모두 흘린  
당신은 말하셨다.

하늘을 보며

“다-이-루-었-다”

침묵

인류 구원을 위한 사랑이었다.

오늘만큼 흘렸어도  
멈추지 않는 피

당신의 사랑  
같보리 언덕을 오른다.

인류의 영원한 구세주



부서탐방-차량관리부

# 주차! 효과만점 전도수단입니다!

주일마다 항상 빨간 안내봉을 휘저으며 교회 안팎을 황급히 왔다 갔다 하는 차량관리부 안내집사님들. 영하의 추위나 폭염의 더위에도 아랑곳없이 그들은 늘 바쁘다.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차를 배치해야 함은 물론, 겹겹이 쌓인 주차대열에서 차량 한 대를 빼낼 때면 짧은 시간 안에 ‘고차원의 퍼즐’을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차량관리부 안내집사님들은 이미 이런 경지를 다 뛰어 넘은 베테랑들이지만, 최근엔 이들도 어쩔 수 없는 숙제가 생겨나고 있다. 바로 이 같은 ‘만차(滿車)’의 상황과, 이 때문에 차를 돌려 가버리는 새 신자들의 문제다.



## 1. 주차공간

현재 교회지하1, 2, 3층까지 최대 수용 차량 수는 약 250대 정도다. 이 가운데 교회 앞 큰 길 건너편의 은마 아파트 쪽 갓길에 약 50대의 차량이 주차를 해왔다. 그런데 구청과 수사경찰서에서 최근 이곳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 상시 단속을 통보해왔다. 이 때문에 차량관리부가 주차안내에 비상이 걸려 있다. 하지만 **구민회관 지하주차장에 2백 여 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니 적극 활용을 바란다.**



차량관리부장 이갑진 장로는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걸어 다니는 전도지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왔다가 주차 공간이 없어 돌아가는 새신자를 생각해주시고. 종직자분들을 비롯한 성도님들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차량관리부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어 한 대라도 더 댈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 2. 주차질서

성도들의 차량은 항상 예매가 임박한 시점에 밀려들어온다. 특히 2부예매가 시작되는 오전 11시 20분을 전후해 최대의 병목현상이 일어난다. 10분만 서둘러 집을 나선다면 생가지 않을 병목현상이다. 갑자기 많이 밀려드는 차량들을 제대로 배치하기 위해 안내집사님들은 매번 전쟁 아닌 전쟁을 치러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운전자가 차 안에 연락처나 열쇠가 없이 차 문을 잠그고 사라지는 경우다. 특히 이런 차가 길목을 막을 경우, 견인용 재킷까지 동원해 차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안내집사님들을 아연실색케 한다. 주차질서만 잘 지켜도 효과만점의 전도가 될 수 있다고 차량관리부는 거듭 호소한다.

## 3. 주차안내요원

효율적인 주차를 위해선 그 만큼의 적재적소에 안내요원이 필요하게 마련이다. 우리 교회의 경우, 한 번의 예매에 필요한 주차요원 수는 최소 15명. 여기에 낮 예매 3번과 찬양예매까지 모두 4번의 예매에 연 60명의 주차요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는 일을 볼 때마다 차량관리부는 일손 부족을 절감하고 있다.

‘주차 예절은 한편으론 훌륭한 전도의 도구’라며 간곡히 실천을 호소하는 차량관리부 안내집사님들에게 이제 성도들이 실천으로 응답할 때다.

김민철(편집부)

# 서울교회 예배 실시간 중계

- 오늘 3월16일(주) 부터 교회 홈페이지 통해 -

오늘부터 우리교회의 모든 정규 예배가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멀티미디어 봉사단(단장 오정수 장로)은 출장이나 해외 체류, 병원 입원 등으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나 함께 할 수 없는 성도들을 위해 우리교회 모든 정규 예배(수요, 주일, 찬양예배)를 실시간 중계하는 것이다. 이는 작년부터 계속되어지는 서울교회 홈페이지(www.seoulchurch.or.kr)의 개편작업의 일환이다.

예배 실시간 중계는 우리교회 정규 예배 시작 10분 전에 시작되어 예배를 마친 10분 후에 종료된다.

교회는 실시간 중계를 위해 모든 인터넷 방송의



사진 ②

고질적 문제인 끊김을 없애기 위해 실시간 방송용 서버를 구입,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예배 실시간 중계 접속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ON AIR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접속된다. (사진 ① 참조)

또한 다락방 모임보고를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받고 있다. 다락방자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화면 우측 하단의 '서울교회 다락방 보고'를 클릭하여 나타나는 팝업창에 주차(일자)를 선택(예: 금주-11주 3월14일)하고 난 후 보고사항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된다.

다입력을 하면 반드시 하단의 '위 내용으로 다락방 보고를 합니다'라는 푸른 색 버튼을 눌러야 보고가 완료된다. 한편 미처 다락방 성경 공부 교재를 준비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다락방 보고 팝업창 하단에 교재를 다운받는 코너도 만들었다. (사진 ② 참조)

우리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선포되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한다.



사진 ①

## 특별찬양

오늘저녁 찬양예배 특별순서는 진지하고 사색적인 음색의 바리톤 조병욱 교수의 독창으로 이루어진다.

조 교수는 서울대 음대를 거쳐 독일 Wuppertal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하였다. 연주곡은 후기 낭만주의의 최고봉인 요하네스 브람스의 '네 개의 엄숙한 노래' 중 세곡과 테오도르 뉘브와 작곡 '십자가상의 칠열 중 넷째말씀'(오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등 4곡을 연주한다.

조 교수는 현재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한예수교장로회 승동교회 성가대 지휘자이다. 피아노반주는 반율리 선생이 맡는다.

## 2008 성경암송대회

금년 성경암송대회는 예선을 10월 19일(주)에 본선을 10월 24일(금)에 갖는다. **암송범위는 베드로 전서 1-5장 전장이다.**

### 등정

■ 이종문 목사는 17일(월) 기독교 교도소 건축허가 감사예배 시 축사를 한다. 21일(금) 서울서부지역 교회연합회 성 금요예배 설교를 한다. 한국 외교협회 기독교회(외교통상부 은퇴대사 신우회) 모임에서 설교한다.

■ 주간 식당 봉사: 루디아 전도회(3.16) 뵤뵤전도회(3.23)

■ 금주의 식사: 교회 제공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 교회주위 환경조성

우리교회는 3월8일(토)스테반회 주관으로 지하주차장 물청소를 하였고, 3월11일(화)부터 교회 앞 도로 정비작업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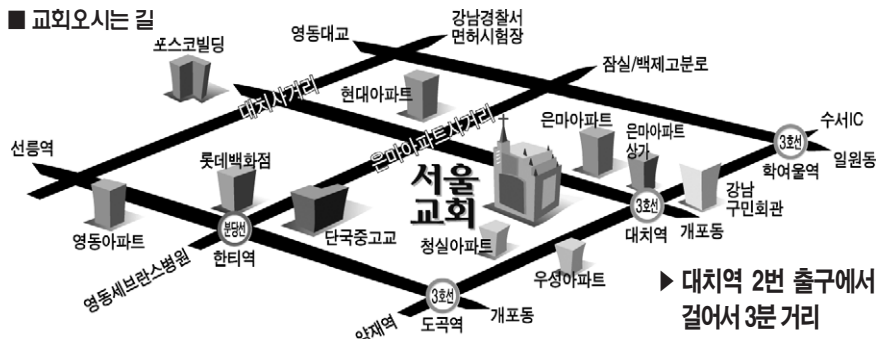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올해 안에 한 가정 이상 전도하게 하소서. (5월4일 '애들이 교회 가자'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청소년을 교회로 인도하게 하소서.)
- 아가페 타운 건설, 은혜롭게 이루어지도록
- 서울성경대학, 33학기 목회자세미나, 16차 KIMCHI세미나, 각종 열린프로그램 위하여
-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